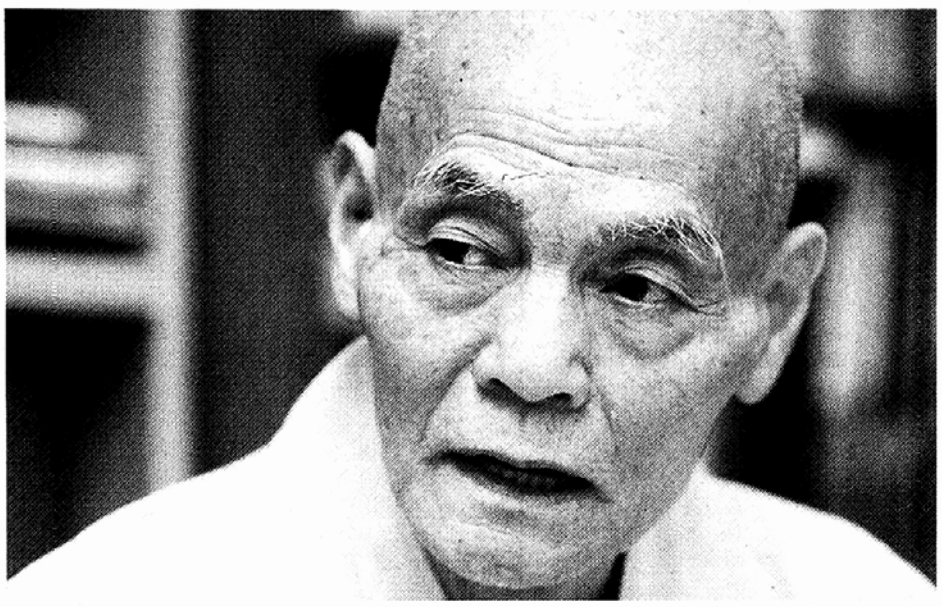
부처님 법 구할 수 있어



◇자신의 수행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순간 순간 살피고 점검하라고 당부하시는 운하스님.

당장 공부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단호한 말씀을 하시면 스님에게서 또 한 가지 색다른 안목을 발견한다. 그것은 현재 성행되고 있고 가장 수승한 수행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화두법에 대한 대의심을 일으키라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의 불교는 화두 수행 일변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화두법이고 지금 나도 화두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부처님의 법과 같은 것인지 가만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 스님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살펴보고 의심을 하면서 바른 법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현재 하고 있는 화두법의 화두는 부처님 경전에는 안 나오거든. 화두법이 부처님 법하고 일치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부처님 법하고 그 내용이 틀린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대의심 · 대신심 일으켜 정진

죄 · 업보 · 생사 뛰어넘어야

평생을 한결같이 화두를 챙겨온 스님. 그 스님이 화두 공부에 대한 대의심을 당부하신다. 그것은 화두법을 부정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의심을 통해 좀더 자신의 공부에 대한 확철한 신념을 세워가며 공부하라는 간곡한 당부로 여겨진다.

"부처님 일생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도 진리를 구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세월을 스승을 찾아 헤매고 다녔거든.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6년이 아니라 6일도 스승 찾는 사람이 없어요. 참스승을 찾아다닌 6년 동안 부처님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무리들을 찾아다니며 이 단체는 무엇을 하고 있고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 셈이야. 그것 속에 진리가 과연 있는가 파악하고 직접 실행해 본 것이지. 그와 같은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야. 지금 당장 화두를 집어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수행이 과연 부처님이 경전에 설해놓으신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순간순간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가 성행했듯이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 그러니 바른 길을 제시한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나의 수행을 점검하려는 끊임없는 의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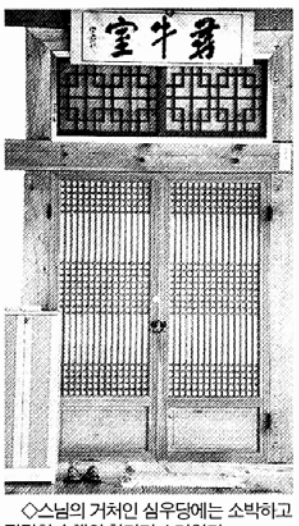
화두 수행 일변도의 수행풍토에 대해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도 화두로 평생을 살아온 스님이 내비치는 의견이고 보니, 겨울 새벽 찬바람 속에 나선 듯 얼얼한 기분이 된다.

"깨쳤다고 게송 짓고 책도 내는 이들이 있어. 그런데 깨치는 과정을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밥 먹다 깨쳤다, 도랑 건너다 깨쳤다 등 별 말이 다 나와요. 부처님 경전에 깨쳤다는 이들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는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본 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탄생하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이나 씨앗을 심어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과정과 순서가 명확한 것이거든. 그렇게 진리는 순서가 정연한 거야. 씨앗을 심었는데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힌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진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

자신의 공부에 대한 대의심을 일으키라는 스님의 간곡한 당부는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정법안장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 더욱 분발하라는 경책이다. 이어 스님은 "가야 될 길은 부처님 법을 따라 가는 것 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분명한 한 가지 길을 제시해 놓는다. 간절한 구도심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수행하고 그 수행을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평생의 공부를 이어갈 때 불교의 핵심인 생사를 뛰어넘은 길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처님 법대로 깨닫기 전에는 생사도 업도 뛰어 넘을 수 없어.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 내 사는 것 자체가 만 생명의 은혜로 가능한데, 어찌 내가 그 생명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수가 있겠어. 은혜 갚는 길은 먼데 있지 않아. 대의심, 대신심을 일으켜 부지런히 정진해서 뛰어 넘어야 해. 죄도 업보도 생사마저도 말이야."

글=천미희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스님의 거처인 심우당에는 소박하고 정갈한 수행의 향기가 스며있다.

운하 스님은?

평생을 참선수행…심우당서 두문불출

운하 스님은 해인사 통도사 등 여러 참선 수행을 했다. 1924년 창녕에서 태어난 스님은 55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평생을 참선 수행에만 매진해 오고 있다. 각처의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을 이어오던 스님은 예순 다섯이 되던 해, 일체의 소임을 마다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리라는 뜻을 세우고 본사인 통도사로 돌아왔다. 적당한 토굴 수행처를 찾을 때까지만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통도사 선방에 입방하여 8년 동안 보광선원 선원장을 맡으면서 공부에만 전념하는 수행처로 이름을 떨쳤다.

지금도 통도사 시탑전 심우당에서 두문불출하며 수행인의 참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다.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 벽산스님



(전호에 이어)

이 말씀은 다른 분에게서 들은 어떤 법문보다 내 가슴에 오랜 여운으로 남아 있다. 스님은 일제 말기, 당시 상황에 따라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도 조계종 승적을 취득하셨고 조계종에서 활동했다. 조계종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대처를 했다는 것은 큰 결점이 아닐 수 없었다. 시대적 상황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그렇게 하였겠지만 "중노릇하려면 여자를 조심하라"는 말씀은 천가지, 만가지 법문보다 나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도 남았다. 젊은 시절, 내게도 이성에 대한 갈등이 없지 않았다. 이성에 대한 갈등과 그리움은 언제나 강한 숙제였다. 그럴 때마다 스님의 한숨어린 이 말씀이 욕망을 자제하게 했고, 나를 이 외길로 걷게해준 힘이 되었다.

그러나 스님의 신앙심이나 수행력은 어떤 스님보다 뒤지지 않았다. 조석 예불을 거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고, 기도를 올릴 때나 불자들의 불공을 올릴 때는 그 염불소리가 얼마나 간절하던지 듣는 이들의 가슴으로부터 신심을 일어나게 했다.



스님은 자주 용맹정진 기도를 하셨다. 그럴 때면 소금 탄 물을 들고 법당에 들어가셔서 이를, 삼일을 꼬박 새워가면서 염불을 하셨다. 어쩌다 목탁소리가 끊어져 조용하여 법당을 들여다보면 목탁은 저만치 굴러가 있고 스님은 졸고 계셨다.

"스님, 이제 주무시고 하십시오. 몸을 돌보셔야지요"하면 스님은 한숨을 길게 내시면서,

"내가 또 졸았느냐? 기도를 하려 하면 잠이 오니 어떻게 하면 수마를 이길 수 있겠느냐? 대답 좀 해보아라" 탄식을 하셨다. 그런 탄식을 보며 수행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고, 나의 게으름을 돌이켜 보곤 했다.

한때 강화 보문사 주지를 하신 적이 있다. 인사차 찾아갔더니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무를 심고 계셨다. "왜 붕대를 감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도량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무슨 업장이 이다지도 두터운지 잠이 이렇게 오겠느냐. 잠 깨라고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려서 깨졌구나." 일주일간 잠을 주무시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니 당연히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참선곡에 '예전 사람 참선할 제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어이 방일한가' 했는데 스님께서는 잠오는 것 성화해서 목탁자루로 머리를 너무 세게 쳐버린 것이다. 스님의 기도 정진은 이와 같았다.

오랜 세월 외국생활을 하면서 기도다운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며 살아온 나는 스님의 용맹정진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가끔 신심이 해이해 질 때는 스님의 깨진 머리를 회상하며 나의 머리를 쳐보기도 하지만 깨어지도록 때려 본 적은 한번도 없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가를 선택해 태어날 수 없고 부모를 선택할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소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수행자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수도자에 있어서 그 죽음을 보면 그의 평생 수행을 점수매길 수 있을 것 같다. 앉아서 입적한 스님은 무수히 많고, 서서 돌아가신 분도 많다. 거룩한 수행을 하신 분들은 가고옴에 걸림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오늘 날 우리 주변을 떠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나의 죽음이 두려워진다. 명성을 얻었던 이름있는 분들께서 보여주신 임종마저 정말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이젠 살아온 날에 비하여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는다.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수시로 용맹정진 기도

임종 세번 예언…좌탈입망

두려움이 이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탄성 큰스님의 경우는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제자 문도들이 병원에 입원하자고 했을 때, "이제는 갈 때가 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수도자의 마지막을 망신시키는 일이다. 이대로 가려하니 그리 알아라" 하시고는 입적하셨다 하니 참으로 대단한 어른이다.

지난 87년 봄 입적하신 벽산스님은 당신의 임종을 세 번 예언하셨다. 임종 3년 전에 '3년밖에 못산다' 하셨고, 3달 전에 한번 더 말씀하셨고, 3일 전에 '3일 뒤에 간다' 고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입적하시기 3일 전까지도 화단을 정리하실 만큼 건강하셨으나 일을 하시다가 나무를 붙들고 갑자기 쓰러지셨다. 놀란 문도들이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시자 "너희가 나를 시중의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는구나. 어서 절로 돌아가자!"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 절에 오셔서 목욕하시고 장삼을 수하고 앉아서 입적하셨으니 좌탈입망(坐脫入亡)하신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수행력이 아니고는 어려운 일이다.

모든 세속적 욕망을 산밖에 던져버리고 좌복에 앉아 욜곧게 살아온 수행자로서는 갈 때도 곧게 앉아 가는 것이 소원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허덕거리지는 않고 떠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래가 이 세상 떠나시는 것을 '선서(善逝)'라 하는가 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北韓 金剛염주
국내시판
북한의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 금강염주 셋트 한정분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친다는 금강염주

金剛염주의 신비

神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북한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신비의 명산품으로 원효대사께서 참선안거 하시던 평안남도 온천군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희귀광석으로 악귀와 액운을 쫓고 건강과 소원이 성취된다는 금강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신비한 영험으로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염주중의 최고의 염주입니다. 金剛염주는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과 일부 스님만이 사용하는것으로서 일반인은 구경조차 못하는 신비의 희귀 광석으로 상온(현재온도)에서 氣와 원적외선 93%가 24시간 방출되는 세계유일의 광석입니다.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금강염주

신청문의 전화 02)704-6868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고 대금 ₩195,000을 아래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신비의 금강염주SE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 1127-02-175765

국내독점보급
K3 金剛 닥터KOREA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48

'나는 누구인가?'의 자기탐구 수행법을 제창한
20세기의 대(大)선지식 라마나 마하르쉬
불자들의 시야를 넓혀 줄 그 가르침의 진수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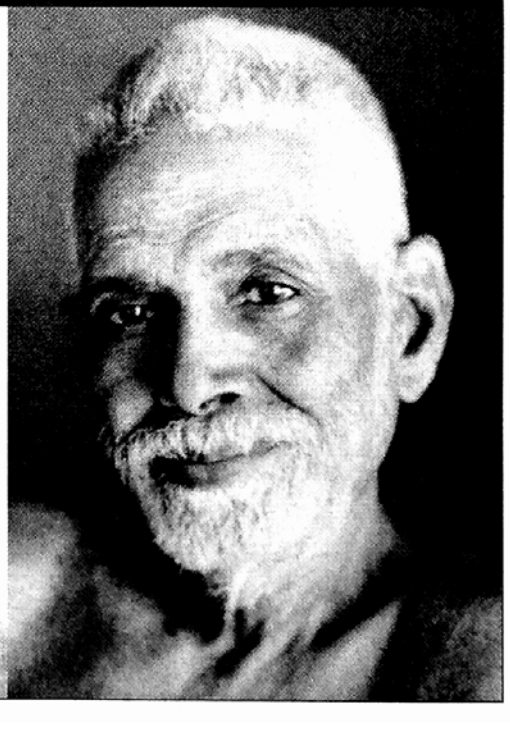
「참선요지」「방편개시」의 번역자 대성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아루나찰라 총서! (전9권)

이 시대의 수행자들을 위한 실천 수행 지침서

본서 마하르쉬의 생애와 가르침
라마나 마하르쉬와 진아지의 길 아서 오즈번 지음 | 320쪽 | 10,000원
라마나 마하르쉬 저작전집 아서 오즈번 엮음 | 376쪽 | 12,000원
바가반이 친히 말씀하신 가르침 아서 오즈번 엮음 | 280쪽 | 9,000원

별서 마하르쉬의 법제자들의 생애와 가르침
바가반의 말씀을 따른 삶 데이비드 가드먼 지음 | 530쪽 | 15,000원
마음은 없다 - 안나말라이 스와미의 마지막 말씀 (근간)
무심(無心) - 나는 진아다 데이비드 가드먼 지음 | 360쪽 | 10,000원
빠빠지 면담록 데이비드 가드먼 엮음 | 360쪽 | 10,000원

신서 마하르쉬의 가르침과 제자들의 회상록
마하르쉬의 복음 슈리 라마나스라맘 엮음 | 160쪽 | 8,000원
추억의 마하르쉬 발라라마 레디 지음 | 163쪽 | 6,000원
구루 라마나 S. S. 코헨 지음 | 304쪽 | 9,000원



도서출판 탐구사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82-9 전화 02-766-4270